

원부재료

'아몬드·호두' 가격 인상 확실 수확량 감소 산지 가격 20% 이상 상승

아몬드·호두의 가격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어 제과점의 원가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아몬드와 호두의 경우 99년에는 풍작을 기록했으나 올해에는 수확량이 감소하고 재고 물량이 부족한 데다가 유럽의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이 겹쳐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견과류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수확 물량의 산지 가격은 9월 중순경 발표되겠지만 아몬드는 99년에 비해 23%, 호두도 25% 이상 인상이 예상돼 올해 말과 내년도에 판매될 국내 제품에 산지 가격 상승분이 반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몬드·호두 등 너츠류는 수확량 감소, 재고 물량 부족, 유럽의 수요 증가로 산지 가격 인상이 예상되지만 국내 시장의 수요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지 가격 상승으로 많은 업체가 난립했던 상황이 정리되고 업체간 가격 덤핑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한편 건포도는 미국 외의 건포도 산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이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수출에 주력하면서 전세계 공급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현재 건포도 가격은 작년 대비 32% 하락한 상태이며, 앞으로의 가격 동향도 현 수준 유지 또는 하향세를 보일 전망이다.

스 등의 제품이다.

초컬릿의 경우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발로나'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수입 시기를 결정한 후 해당 제품을 호텔 및 대형 제과점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머핀·스펀지 믹스 등 제과용 믹스는 이 부분에서 최상급으로 평가받는 업체의 제품을 수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재료는 시장 수요가 많은 품목인 데다가 타 업체와의 경쟁을 고려해 베이크플러스가 최상급 제품을 수입할 계획이어서 업체간 치열한 시장 쟁탈과 판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호두 전문브랜드 '다림너츠빌'

다림, 법인 설립 및 상표 출원



(주)다림 너츠빌

호두 전문 브랜드가 탄생했다.

견과류 수입 업체인 다림유통은 8월 11일 회사명을 다림 너츠빌(대표 유한규)로 변경,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상표 등록을 마쳤다.

이번 법인 설립과 상표 등록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몬드 상표명인 '블루 다이아몬드'와 같이 국산 유통 호두 제품에도 상표명을 부여해 전문 브랜드로 육성시키기 위한 것.

다림너츠빌은 미국산 호두를 단순 수입하는 것에서 탈피해 산지에서부터 우수한 제품을 선별해 수입하는 등 품질 관리를 통해 타 업체와 차별화할 계획이다.

주소: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7-8

리젠트오피스텔 502호

☎(02) 455-0817~8

〈원부재료 종합/박종선 sunpark@mbakery.co.kr〉

삼립유지, 회사명·상호 변경 '(주)삼립웰가'로 새롭게 탄생해



(주)삼립유지가 9월 1일부터 회사명과 상호를 (주)삼립웰가(Samlip Wellga Inc)로 변경해 새롭게 탄생한다.

삼립웰가는 전통과 기술, 신용을 갖춘 '삼립'과 "좋은", "유익한", "잘하는"이라는 영어의 'Well', "가족", "집", "가문"의 뜻을 지닌 家(GA)의 영어 발음을 합성한 것으로 50년 역사를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만을 지향하는 회사 경영 이념을 함축하고 있다.

한편 삼립웰가가 새롭게 마련한 로고

는 전통을 나타내는 고딕체의 검정색 글씨와 Well의 '중다'는 의미인 원형 표시를 연두색으로 표현해 환경 친화적이며, 편안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종합 식품 회사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표현한 것이다.

베이크플러스, 과자류 품목 확대 최상급 초컬릿·머핀믹스 등 수입

베이크플러스(대표 김웅일)가 양과자 재료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곡물용 믹스 등 빵 품목 재료를 주로 취급해 왔던 베이크플러스는 경쟁 업체의 시장 공략에 대응하기 위해 과자류 품목 완비 계획을 3년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이 업체가 준비 중인 과자류 품목은 초컬릿 커버추어와 머핀·스펀지 믹

유통 / 기계

제과 기계 신제품 개발 활발 기존 제품 품질 향상·기능 개선

제과 기계 업체의 신제품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영송기계공업에서 올해 2월 출시한 신형 버티칼 믹서는 기존 제품과 달리 밀폐형으로 소음이 없고 모터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아 내구성이 좋다. 이 업체는 이전에도 국내 최초로 12인치 벤치형 믹서를 출시했었다.

대명기업의 새로운 썸 케이크 기계는 기존의 가스식을 안전한 전기식으로 개발해 제품 제조 시간을 단축시키고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우정공업은 센서가 있는 초콜릿 템퍼링기를 선보였으며, 비봉실업도 소형 생크림 믹서를 곧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가 새로 선보이거나 출시 예정인 국산 제과 기계는 기존의 제품에 비해 외형과 기능, 성능이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정한상 / jeong@mbakery.co.kr〉

할인점 판촉사원 크게 증가 매출 증대 위해 업체간 과열 경쟁

대형 할인점들이 매출 증진을 위해 판촉사원을 크게 늘리고 있다.

E-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등 할인점은 작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달하는 입점 업체 판촉 사원들을 투입해 홍보와 매출 향상 경쟁을 벌이고 있다.

E마트는 25개 점포에서 6백여명, 홈플러스는 5백여명, 까르푸는 점포별로 무료시식회와 시음회 등의 행사 진행하는 판촉사원을 평균 2~4명씩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할인점 업계에서는 과열

경쟁으로 촉발된 과도한 판촉사원 투입은 결국 제조원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오형석 / ohs@mbakery.co.kr〉

‘정글짐’ 갤러리아백화점 입점 베이커리·아이스크림 복합 점포

(주) 커스타프는 8월 4일 정글짐베이커리 1호점을 재오픈한 데 이어 11일에는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에 매장을 새로 오픈하고 판매에 들어갔다.

지하 1층 식품관에 10평 규모로 입점한 정글짐베이커리는 70여 종류의 빵, 케이크 제품 외에 커스타프가 운영하는 브루스케타픽스 카페의 취급 품목인 12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접목시켜 복합점포 형태로 운영중이다.

〈강인옥 / inok@mbakery.co.kr〉

까르푸, 호남 공략 신호탄 올려 순천점 ‘할인 베이커리’ 90평 규모

한국까르푸(www.carrefour.co.kr)가 지난달 전남 순천시 풍덕동에 호남 지역 1호점인 순천점을 개점했다.

지하 1층, 지상 5층에 매장 면적 3,600평 규모인 순천점을 계기로 한국 까르푸는 현지화 전략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호남지역 상권을 적극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순천점의 경우 직원의 90% 이상을 순천 출신을 고용했으며, 지역 특산품을 최대한 많이 취급할 방침이다.

순천점에 입점한 할인 베이커리는 매장 90여평에 직원 28명이 2교대 근무를 하며, 약 30여가지의 단과자류빵을 비롯해 100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예정이다.

한국 까르푸 관계자는 “할인점 내 베이커리도 현지화 전략에 따라 앞으로 개점하는 점포는 지역 출신자들을 우선 채용할 것”이라며, “곧 출점 예정인 수도권권의 경우 시흥과 가양동 일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제과 기술인을 모집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오형석 / ohs@mbakery.co.kr〉

전문할인점 ‘킹피셔’ 국내 상륙 영국에 본사, 작년 매출 18조원대 육박

영국 최대 규모의 전문할인점인 킹피셔 그룹이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업체는 이 달 중 한국법인을 설립, 본격적인 국내 할인점 시장에 뛰어든다.

현재 국내에는 까르푸, 월마트, 테스코 등 외국계 할인점이 들어와 있지만 전문용품 할인점인 카테고리킬러가 국내에 진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업체는 이미 대만, 중국, 상하이 등 아시아에 진출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활발한 확장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킹피셔 그룹은 지난 회계 연도 매출이 약 18조원에 이르는 유럽의 초대형 비식품 전문 소매업체로 현재 전기용품 업체, 완구 및 의류 등 잡화취급 업체, 홈 인테리어 용품 업체 등 10여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오형석 / ohs@mbakery.co.kr〉

영송기계공업 공장 이전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10-51호
전화 : 461-8114, 498-2812
FAX : 498-2812

연수 / 세미나

이바쇼 · 일본과자전문학교 연수단 모집

이바쇼 - 9월 28일, 일본 - 10월 2일 출발

대한제과협회(회장 권상범)는 이바쇼와 일본과자전문학교 연수단을 모집한다.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이바쇼에서 냉동 생지, 제과 제빵 생산 시스템 등 최신 경향을 엿볼 수 있으며, 하이델베르크, 프랑크푸르트 등의 유명 제과점을 시찰한다. 9월 28일~10월 3일까지의 5박 6일, 9월 28일~10월 8일까지의 10박 11일 일정 두 가지가 있다.

한편 일본 기술 연수는 일본과자전

문학교에서 빵 1일, 양과자 1일, 참가자 제과 제빵 실습 1일 기술 연수를 실시하며, 동경의 유명 제과점 및 가빠바시 도구 상가 등을 둘러보게 된다.

특히 이번 연수에는 규모가 크게 확대된 전일본양과전을 참관해 다양한 양과자 제품과 뛰어난 제과 기술을 경험하게 된다. 10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 일정이다.

참가 신청 및 문의 : 대한제과협회

☎(02)2277-0702

프랑스 유명 기술인 초청 세미나

세바 장자크씨 초청 18일부터 2일간

대한제과협회는 프랑스 유명 기술인을 초청해 세미나를 실시한다.

리치몬드제과기술학원에서 9월 18~19일 오후 2시부터 실시되는 이번 세미나는 프랑스 M.O.F 예선을 통과한 세바 장자크씨가 초청돼 다양한 양과자

와 설탕 공예를 선보인다.

2일간 세미나 비용은 10만원이며, 신청 순서에 따라 세미나 좌석을 배정한다.

참가 신청 : 대한제과협회

☎(02)2277-0702

〈오형석 / ohs@mbakery.co.kr〉

동서제과교육원 기술자반 개설

9월 25일 개강, 20명 선착순 모집

안양시 동서제과제빵기술교육원(원장 박성수)이 기술자반을 모집한다.

중견 기술인의 기술 향상을 위한 이번 과정은 각종 경연대회 수상자, 제과 기능장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해 수강생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데커레이션기법, 에어브러시, 설탕·초컬릿 공예, 화과자 등을 실기 위주로 교육한다. 신청 기간은 9월 25일(개강일)까지이며,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 문의:(031)469-0255

〈강인옥 / inok@mbakery.co.kr〉

프랑스국제식품산업전 개최

10월 22일 노르 빌렙트 전시장서

프랑스국제식품산업전시회(SIAL 2000)가 10월 22~26일까지 프랑스 파리의 노르 빌렙트 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17개 분야에 90여 개국 5,000여개 출품 업체들이 참가해 국제 전시장 7개 홀에서 제과 제빵, 유제품, 육류, 야채, 냉동식품, 음료 등의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경향 코너, 혁신 코너가 마련되는 등 참관객들에게 식품 분야의 11종류 신경향을 선보이고, 식품 산업 시장의 변화와 혁신적인 기술의 이해를 돕는다.

전시회 정보는 SIAL 2000 웹사이트(<http://www.sial.fr>)에서 얻을 수 있다.

☎ 문의 : 주한 프랑스 국제전시협회

(02)564-9833

〈강인옥 / inok@mbakery.co.kr〉

제과학교 동문회 기술세미나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10개 도시 순회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동문회(회장 김영석)가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순회 세미나를 실시한다.

삼양사가 주최하고 제과학교 총동문회가 후원하는 이번 기술 세미나는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수원, 원주, 마산, 광주, 부산 등 10개 도시에서 10회 열릴 예정이다.

☎ 문의:한미제과기술학원(02)957-6080

〈강인옥 / inok@mbakery.co.kr〉

신제품 및 경영 세미나개최

'오성' 주최 9월 28일 제과학교서

오성인터내셔널(대표 김봉수)이 9월 28일 오후 2시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에서 신제품 및 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유니온무역과 비트컴퓨터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니온무역의 유채민씨가 스페인빵 스페셜과 양과자 3가지가 선보이며, 김스컨설팅의 김봉수씨가 고객 관리 카드기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 문의:오성인터내셔널(02)322-6792

종합

광주 라인제과 장진규씨 선행 후원해온 북 송환 장기수와 의형제

광주광역시 라인제과의 장진규 사장이 북으로 송환될 비전향 장기수 김동기씨(68세)와 의형제를 맺은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월 특사로 풀려난 비전향 장기수 4명이 집 근처 '통일의 집'에 살게 됐다는 뉴스를 접한 장진규씨는 33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김씨를 찾아 가족 나들이를 같이하고 명절 때 집에서 만들어간 송편과 떡국을 나누어 먹으며 외로움을 덜어 주었다.



▲ 광주일보 제공

9월 2일 북으로 송환되는 김씨를 양아버지로 모시겠다고 밝혔으나 극구 사양하는 바람에 장진규씨는 의형제 관계를 맺었다. 아우의 체취가 담긴 옷을 달라는 김씨의 요청에 따라 장진규씨는 입던 바지를 선물로 주었다.

지난 달 23일 라인제과에서 장진규 사장은 자신이 직접 만든 케이크에 서로의 이름을 새기고, 통일이 된 뒤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며 촛불을 켜는 결연식을 가졌다.

〈정한상 / jeong@mbakery.co.kr〉

아이스크림 하반기도 성장 프리미엄급 전년비 33%증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이 하반기에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때 이른 무더위와 경기 호조, 고급 아이스크림 선호 경향이 강해 아이스크림 업체의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15% 이상 신장한 5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스킨라빈스, 하겐다즈, 니뚜루 등은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15~20% 상회하자 하반기 매출을 상향 조정했으며, 베스킨라빈스의 경우 상반기에 350억원의 매출을 올려 올해 매출 목표를 100억원 증가한 700원으로 높여 잡았다.

성수기 때의 비약적인 매출 신장에 힘입은 프리미엄급 아이스크림 업체는

올해 총 매출이 작년의 900억원보다 33% 증가한 12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한상 jeong@mbakery.co.kr〉

프라자, 베이커리 사업 부진 외식사업 우선, 점포 개설 힘들 듯



프라자호텔(www.seoulplaza.co.kr)의 외부 베이커리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자호텔이 지난 1월 여의도 한화증권빌딩에 텔리프라자를 오픈한 이후 추가 점포 개설을 하지 못한 반면 타 호텔들은 베이커리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조선호텔은 E마트의 '데이 앤 데이'는 물론 프랑스와 기술 제휴한 '달로와요'를 신세계백화점에 입점시키며 활발한 점포 확산을 꾀하고 있다.

또 신라호텔도 압구정점과 반포점에 이어 지난 8월 14일 분당 삼성플라자에 3호점을 개설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쟁 호텔들에 비해 활동이 저조한 것에 대해 프라자호텔의 한 관계자는 "우선은 기존의 외식 사업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규 사업을 자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라자 호텔의 외부 베이커리 사업은 연내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한상 / jeong@mbakery.co.kr〉

'제과제빵 기능사·기능장' 출간 기능장 주관식 예상 문제 수록해

(주) 화학사에서 기능사 및 기능장 필기 시험용 문제집인 제과제빵 기능사·기능장을 출간했다.

대한제과기술학원 오병호 부원장이 집필한 이 책은 1999년 3월 개정된 이론 출제 경향에 맞추어 쉽게 정리했으며, 과년도 실제 문제와 적중 예상 문제를 수록했다. 이 교재는 현재 1만5,000원에 판매중이다.

☎ 문의:(02)711-6691

〈강인옥 / inok@mbakery.co.kr〉

협회소식

부산지회, 웨프회 세미나 주관 회원 작품 전시 및 세미나 실시

부산광역시지회(지회장 이하두)가 부산 제과인 모임인 웨프회가 주최하는 작품 전시회 및 초청 세미나를 주관했다.

지난 8월 31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웨프회(회장 김문국) 모임 100회를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회원들이 제작한 작품 40여가지가 전시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웨프회 회원 및 부산 제과인을 대상으로 신철수(제과 기능장·우송산업대 교수)씨의 초청 강연에 이어 서강현(평택 케익타운 기술 상무)씨가 양과자, 쿠키, 빵 제품 세미나가 실시됐다.

성동·광진지회, 이사회 개최 단합대회도 실시, 회원 화합 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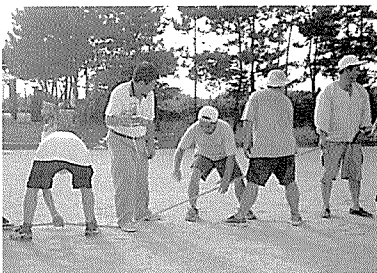


성동·광진지회(지회장 신동균)는 8월 17일 가평에서 이사회 겸 단합대회를 실시했다.

지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친목과 화합을 다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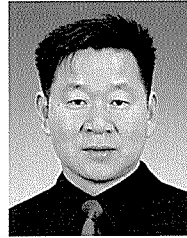
제주지회, 하계 야유회 실시 체육대회로 회원 화합 다져



제주도지회(도지회장 이창화)는 지난 7월 용담 레포츠 공원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 야유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제주도지회는 축구, 줄다리기 시합을 갖고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다졌으며, 지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의정부지부, 새 지부장 임재학씨 전임 지부장 사퇴로 이사회서 선출



의정부지부는 8월 16일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의정부지부는 전임 지부장이 제과업을 중단함에 따라 공석이 된 지부장에 다비스베이커리의 임재학씨를 선출했다.

구미시지부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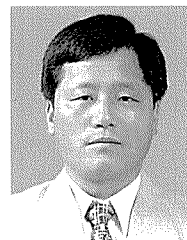
신임 지부장에 박해용씨 선출 전임 지부장 사퇴로 지위 승계



구미시지부는 오장식 지부장이 갑작스런 전업으로 지부장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긴급 이사회를 개최,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는 정관 제26조에 의거해 부지부장이었던 누리베이커리의 박해용씨를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구미시 지부 : 경북 구미시 송정동 497-1 누리마트 내 누리베이커리 ☎054)454-3482

도창환씨 선관위 표창장 받아 16대 총선 선거관리 기여 공로로



구미시지부의 도창환(뽕굶는 마을) 회원이 7월 12일 시청 귀빈실에서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구미시 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도창환 회원은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 때 지역 투표구 선거 관리 위원장 겸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 상근 특별 단속위원으로 공정한 선거 관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경북 선거관리위원장 표창장을 받았다.

<협회 소식 종합/박종선 sunpark@mbakery.co.kr>